

외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젠 존슨(Jan Johnson)/ 크리스천 작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 나는 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리더 모임에서 제시되었던 “3분 사역”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예배 전후 3분 동안, 모든 리더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지도를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얼굴이 있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건넸다. 그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듯 했다. 잠간의 대화를 통해 나는 그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 내내 복잡했던 주차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편안하게 해 주려고 노력했다. 나와 그의 대화를 통해 그는 훨씬 마음이 열린 듯 했다.

3분 사역

“3분 사역”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지나치게 피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 상투적이지 않는가? 게다가 우리가 실제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한 의무적인 대화는 오히려 자기를 내세워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세계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3분 사역”을 시작한 후로 나는 이것이 어떻게 내 스스로의 껍질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주는지를 발견하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3분 사역”은 성경이 “외인” 혹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리스께서 가지셨던 환영하는 자세를 우리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해 주었다.

“3분 사역”과 같은 새로운 강조가 없다면 오래된 신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기 쉽다.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와 다르면 다름수록 우리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소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환영의 악수를 나눌 때에 가장 잊기 쉬운 사람들이다. 특별히 내성적이거나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회중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옷차림이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피부색이나 언어, 혹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 주시는 “이방인”들과 진정으로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아주 천천히 깨달아 가고 있다. “이방인”들을 지나쳐 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가능성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을 함께 제거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에 경계선을 긋고 그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한다. 이방인을 규정하는 나만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트럭 운전사와 같이 보이는 남자나 다섯 명의 아이에 둘러싸여 있는 여자들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이들을 기피할 수 있다.

도움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나는 다른 쪽을 향해서 선을 긋는다. 나는 길거리의 부랑자나 타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을 보면 강한 끌림을 받는다. 그러나 내게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나타난다면 나는 그를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는가?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를 향해서도 선을 긋지 않으신 듯 하다. 죽어 가는 소녀를 일으키기 위해 가시던 급한 여행길에서도 그는 고침을 받기 위해 자신을 막아섰던 만성적인 혈루병에 시달렸던 한 여인을 물리치지 않으셨다. 화를 내시거나 그녀에게서 떠나시키지는커녕, 예수님께서서는 그녀가 스스로를 밝힐 때까지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녀가 처해 있었던 곤궁을 끝까지 들으신 다음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셨다(막5:24-34).

예수님께서서는 대화 가운데 외인들을 손님으로 존중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외인들의 땅에서도 그들을 자신과의 대화에 손님으로 초대하셨다. 혼혈의 땅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 땅의 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는 도움을 청함으로써 그녀의 위치를 존중하고 있다.

“외인” 혹은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과거를 살면서 우리와는 다른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은 즉시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보는 순간 당신도 모르게 “나와는 다른 사람이군”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와의 만남을 회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환대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려는 마음이다. 그것은 “가족” 같은 친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세우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일에 얼마나 서툰지 미리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볼 때 이방인을 보는 것과 같이 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마25:35) 헤롯왕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방 땅으로 피할 곳을 찾아 도망가셨던 나그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마2:13-21). 아기 예수의 가족과 같은 처지에 놓인 오늘날의 많은 가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종이나 국가,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고할 필요가 있다(빌2:4를 보라).

하나님은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까지 환대하라고 명하셨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신1:16; 24:17; 27:19).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상대하도록 명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명령받았다(신10:19).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로마 병정이 5리를 가자고 할 때에 10리를 동행해 주라고 명령하셨다(마5:41). 로마 군사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반감지 않는 외인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왜 나는 외인들을 기피하는가

외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 동료 교우들과만 시간을 보내려 한다. 아래에서 나는 외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들고 나가는 몇

가지 문제들을 나열하고자 한다.

편안함에 대한 추구 - 우리가 편안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려 지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의 오랜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C. 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인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조카 웬우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들끼리만 친해지려고 하는 생각이나 비밀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크리스천들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덫이다.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해라.”

나는 몇 년 동안 함께 사역해 온 두 가족이 나누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위의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 두 부부에게 이제 나뉘어져 각각 다른 부부를 훈련시키도록 요청했을 때 그들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모임에서 누렸던 편안함을 지속시키고 싶어했던 것이다.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것만 하는 것은 종종 행동의 지침이 되어, 외인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수줍음 - 나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어서 “3분 사역”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새신자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겼다. 그래서 나는 대화를 열 수 있는 몇 마디의 말들을 미리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한 다음 잔뜩 긴장해 있는 새신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구하기 위한 수고를 감행하였다.

직업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 경우 - 만약 당신이 직업적으로 외인들을 많이 상대해야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경향을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늘 영두에 두고 있다. 첫째는 고독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공동체이다. 일방적인 보살핌을 쏟아야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선입견 - 때로 우리는 외인들이 우리의 친절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내 딸아이가 십대였을 때 친구로 지냈던 여자 아이에게 같은 감정을 느꼈다. 방과 후면으레 그 아이는 내 딸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과자를 먹었다. 그러나 한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화가 나서 속으로 생각했다. ‘애가 우리가 더 비싼 과자를 사 놓지 않으니까 우리 잡을 무시하는가 보군.’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나는 나를 무시하는 이 이방인을 위해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왔을 때, 내가 다른 일로 바쁜 중에 있었지만 곧바로 가까이 가서 이름을 불러 주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 친 채로 그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번은 교회의 모임에서 과자를 주길래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그 아이에게 주면서 말했다. “널 줄려고 가져 왔어”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 날, 그 아이는 내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어 보기까지 하였다.

뒤편과 이기적 자세 - 우리 교회의 근처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아침 저녁으로 태우기 위해 학부모들이 교회의 주차장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교회가 이를 막기 위해 교회 주차장을 개조하겠다고 나선 사건이 있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는 몹시 안타까웠다. 그 학교의 주차장은 매우 좁은 데다 그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

을 자주 봐 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교회의 지도층에 이야기했다. 그러나 교회 주차장 공사가 막 완료되어 당분간은 이를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다른 부교역자 한 사람과 나는 우리 주차장을 개방할 뿐 아니라 아침 시간에 맞추어 학부모들에게 간단한 아침을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결국, 우리 교회 지도층의 마음은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내 건 다음에야 바뀌었다. “교회 주차장 이용 환영 (주일 6:30-11:30 AM 제외) 아울러, 주일 8, 9:30, 11 AM에 여러분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인과 이방인들이 우리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을 꺼려한다. 우리의 집이나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특히 외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맥기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마치 요새와 같이 가꾸려고 한다. 이러한 자세는 크리스천들에게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집도 소유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마음을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항구로 개방한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무나 오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이전에 나 또한 많은 기도제목들과 광고들이 “다들 아시다시피...”라는 어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 그 교회에는 나보다 더 늦게 그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많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모임 장소에 이르는 간단한 지도 한 장만 제공하더라도 새신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티가 있다는 광고를 하고 모임을 주관하는 가정의 성만 광고한 적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한 부부가 길을 묻기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집에 전화를 했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 부부는 파티에 가지고 갈 요리까지 준비했으나 가는 길을 몰라 가지 못 했다. 그 새신자 부부가 그 이야기를 내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교회의 게시판에 광고가 어떻게 게시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X가 어디에 사는지 이 교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다음 나는 주차할 때에 반드시 교회 뒤편에 있는 외진 곳을 찾게 되었다. 방문객들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동안 교회를 빠진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러모로 낯설 수밖에 없다. 복장은 교회의 분위기에 맞는지, 예배 시간 중에 언제 일어서야 할지 등 기존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많은 것들이 그들을 교회 내에서 어색하게 만든다.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 가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다.

외인들을 환영하는 것은 종종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자신을 부인할 때에 가능하다. 교회 뒤편에 주차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좋은 주차 자리를 찾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갈

3:13-14).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즉 외인과 이방인을 환대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글은 도서출판 두란노가 발행하는 목회전문 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6월호(통권 156호) 263-267쪽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